



**특집** \_ “평화통일·경제발전 기여 다짐”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82개국 380여 명 한인회장 참여, ‘고국과 유대 강화’  
**화제** \_ ‘동포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민단 70주년 기념식 개최 평화 통일 기여·차세대 육성 등 미래창조 메시지 발표



##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 곱은옥 총총히 단 화려한 장식, 신라 왕족의 힘과 권위 상징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로 화려한 금관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출토된 금관은 모두 10여 점인데 그중에서 한국에서 출토된 것이 8점이다. 이 가운데 경주 도심에 있는 5~6세기에 조성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5점의 금관이 출토되었다. 금관이 출토된 고분으로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이 있다. 황남대총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발굴했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에 속하며, 귀금속 장신구와 희귀한 수입품 그리고 엄청난 양의 철제품과 질그릇이 부장된 점에서 학자들은 이 무덤을 왕릉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왕의 능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1976년에 문화재위원회는 이 무덤을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란 뜻으로 '황남대총'이라 이름을 붙였다. 황남대총은 남북으로 두 개의 무덤을 잇댄 쌍무덤이다. 먼저 만든 남쪽 무덤은 왕의 능이었고, 북쪽 무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중에 잇댄 왕비의 능이었음이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황남대총 북분에 안장된 왕비는 금관과 금으로 꾸민 허리띠 이외에도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 가슴꾸미개 등으로 치장했다. 비록 비단옷과 장신구에 덧댄 직물이 거의 모두 썩어 없어졌으나, 남아 있는 귀한 장신구는 생전에 누렸던 가장 화려한 복장을 입혀 장례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보 191호로 지정된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은 신라에서 유행한 나뭇가지 모양 금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개의 맞가지(對生枝)와 두 개의 엇가지(互生枝)로 조합된 세움 장식(立飾)은 좁고 긴 머리띠에 높이 솟아오르도록 부착되었다. 표면에는 무늬를 새기고 곱은옥(曲玉)과 달개를 총총히 매달아 한층 화려하게 꾸몄다. 비취라고도 부르는 경옥으로 만든 곱은옥과 금판을 둥글게 오린 달개는 하나하나씩 금실로 매달았다. 머리띠 아래에는 곱은 고리에 사슬로 달개를 엮은 금제 드리개를 좌우에 세 개씩 늘어뜨렸다. 머리띠는 유기질로 된 끈으로 양 끝을 묶었던 듯 하다. 곱은 고리의 금제 드리개는 차용한 사람이 여성이었을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 금관은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쓰고 활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신라 왕족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창**



1



2

1.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라 시대 적석목곽분인 경주 황남대총 중 북분 출토 금관. 국보 제191호. 신라 금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높이 27.3cm, 아래로 늘어뜨린 드리개(늘어뜨린 장식) 길이는 13~30.3cm.
2. 1974~1975년 경주 황남대총 북분 유물 발굴 현장.

# CONTENTS 2016.11



04



06



## 표지 이야기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는 82개국에서 방한한 38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창' 조 한국의 미래,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라는 표어 아래 현안 토론, 정책포럼, 문화 공연 등을 펼쳤다.

- 02** 한국의 열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  
    곱은옥 총총히 단 화려한 장식, 신라 왕족의 힘과 권위 상징
- 04** 특집      "평화통일·경제발전 기여 다짐"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82개국 380여 명 한인회장 참여, '고국과 유대 강화'
- 06** 화제      '동포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민단 70주년 기념식 개최  
    평화 통일 기여·차세대 육성 등 미래창조 메시지 발표  
    한민족 정체성 육성한 2016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3개국 97명 참가, 공공외교·모국기여 방안 모색  
    민주평통 통일대화... "모든 길 열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 맞이할 것"
- 12** 기획      이민 50주년 맞은 남태평양 피지 한인사회  
    한인 진출 기반 원양어업 퇴조 속 홈스테이·관광업 부각
- 14** 글로벌 코리아      모국 청년 100명 채용 호주 '초밥왕' 신이정 씨  
    필리핀 '망고장학회' 윤상식 이사장  
    입양아 출신 진호 베르돈스콧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
- 16** 동포소식      이스탄불 한국협회, 15년째 현지 심장환자들에 '온정'
- 19** 동포 캘린더      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 창립...원장에 임채완 전남대 교수
- 20** 지구촌 통신원      싱가포르에 다양한 모습으로 한류 확산  
    "1박2일 방영된 곳 어떻게 찾아가죠?"
- 21** 주목! 차세대      한인 2세 캐나다 검사 이진아 씨  
    "이민가정 출신 배경이 검사 생활에 도움... 열정적으로 살 것"
- 22** 한민족 공감      미주 독립유공자 215명 전집 국내에도 선보여  
    이승만·안창호 등의 발자취 담은 '애국지사의 꿈' 출판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조선 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별미... 임진강 참계  
    참계 맛 으뜸은 계장... 돌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밥 도둑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평화통일 · 경제발전 기여 다짐”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82개국 380여 명 한인회장 참여, ‘고국과 유대 강화’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82개국에서 380여 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각국 한인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들이 한국에 모여 고국과 유대 강화를 모색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2개국에서 방한한 38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창조 한국의 미래,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라는 표어 아래 현안 토론, 정책포럼, 문화 공연 등을 펼쳤다.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역량을 넓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는 각국 동포 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첫날인 4일 오전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이 ‘한반도 역사와 한민족의 긍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5일에는 오전에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이 열려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국 발전에 기여한 동포 유공자 등을 포상했다. 오후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병무행정·재외선거·납세제도 등을 소개하는 ‘정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사흘째인 6일에는 대륙별로 한인회 관계자가 모여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사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지역별 현안 토론’을 펼친 뒤 오후에 국내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하는 ‘주요 정당 정책포럼’을 열었다.

대회 기간에 한인회 운영 우수 사례 발표, ‘한인회장의 밤’ 만찬 등 친목 행사도 열렸다.

## 박 대통령 “동포 협력은 우리 경제 큰 힘”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개회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동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과 통일 노력을 주변에 잘 알려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작년 6월 세상을 떠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 창립 70주년을 맞은 제일민단, 50년 전 독일로 건너간 파독간호사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동포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족 특유의 강한 자립심과 성실함으로 수많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오셨고,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중장전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재외동포센터 건립 실천을 약속했다.



1. 주철기 이사장이 대회 공동의장 및 각 지역별 연합회장과 세계한인의 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며 꽃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지도를 표현한 '대한민국 희망의 꽃 세세레머니'를 펼쳤다.
2. 박근혜 대통령이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에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상상을 했다.
4. '제10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훈포장을 받은 유공자들. 오른쪽부터 여옥선 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사카부지방본부 고문(무궁화장), 안정락 한중교류문화원 이사장(동백장), 이광배 오스트리아 한인회장(목련장), 최중근 멜번 한국전 참전기념비건립추진위원장(석류장), 박동우 오렌지카운티 노인회 고문(국민포장),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사무총장(대통령표창 단체기수),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장(대통령표창 단체대표)

### 평화통일 기여·재외동포센터 건립 결의

7일 폐회식에서 한인회장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차세대 민족교육의 산실이자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교류의 중심점이 될 '재외동포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센터 건립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판교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외동포센터에서는 숙식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고국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김브라이언 대회 공동의장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재일민단 창단 70주년을 축하하며 재일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재일민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모국청년의 해외진출 및 취업을 지원한다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등의 결의도 담았다.

폐회식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모금한 장학금 2천600만 원을 남북하나재단에 전달했다. 박세익 공동의장은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미래 통일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폐회식에 앞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박세르게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부회장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이 되는 2017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고,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최근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이 현지사회에 매각된 것을 소개하며 "우리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2017년 대회 공동의장으로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남창규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주철기 이사장은 환송사를 통해 "대회 기간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논의된 내용들이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논의한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 방안을 적극 수렴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 ‘동포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민단 70주년 기념식 개최 평화 통일 기여·차세대 육성 등 미래창조 메시지 발표

**재**일민단 창단 70주년 기념식이 10월 21일 오후 도쿄 그랜드 프린스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준규 주일대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타케오 일한친선협회 회장, 김수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백진훈 민진당 참의원, 나경원·박병석·조배숙 국회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민단은 동포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되면서 기념식은 시작됐다. 국민의례, 오공태 단장의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내빈들의 축사, 표창 수여, 창단 70주년 미래창조 메시지 발표, 만세삼창 순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됐다.

## 모국 공헌에 앞장서온 재일동포 구심점 ‘민단’

오공태 민단 단장은 기념사를 통해 “긴 세월을 걸쳐 민단이 계승·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인들의 헌신과 조국 대한민국의 지원, 재일한국인을 지켜준 일본 사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단의 모국 공헌 역사가 교과서에 실리기를 희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민단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뜨거운 조국애와 헌신으로 큰 힘이 되었다”며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든든한 버

팀목으로써 양국 소통과 교류의 기반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재일동포들의 모국 사랑에 감사하며 재일동포사회의 변화에 맞춰 한글 사용 확대 등을 통한 민족 정체성 강화와 차세대 육성 등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포사회에 기여해온 인사에 대한 표창수여식 후 ‘민단 창단 70주년 미래창조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에는 남북평화 통일 기여, 이민족에 배타적인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방과제 역할, 건전한 재정확립, 한일 관계 개선 이바지, 민족 교육 강화, 지방참정권 획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념식 후 만찬에서는 사물놀이 공연과 동경한국학교 초등부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그룹 노트보이즈(Naughty Boys)의 박력 있는 K팝 공연과 KBS 민단 특집 다큐멘터리 예고편 상영 등이 있었으며, 가수 박현빈 씨는 ‘곤드레 만드레’, ‘오빠 한번 믿어봐’ 등 열창했다.

## ‘한일 친선과 통일 기여’ 심포지엄

이에 앞서 20일에는 도쿄 한국중앙회관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민단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재일민단 70년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조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동북아시아 평



민단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재일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인사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좌). 민단 70주년 기념식 축하행사로 동경한국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10월 21일 오후 도쿄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민단 70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민단의 미래창조 메시지 발표 후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화변영,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민단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민단이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이행 등 한일 화해와 어린이잡버리, 청년 모국연수 등을 통한 차세대 육성, 한일 양국의 번영·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재일동포사회의 중심점이자 한일 양국의 가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민단 70년,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한일관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한인네트워크는 근·현대사의 산물이자 한국과 거주국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라고 진단했다.

권용대 일한교류축제협회 사무국장의 ‘향후 50년을 위한 풀뿌리 한일간의 교류에 대한 제언’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반대도 중요하지만 일본인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친하게 지내려 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이 풀뿌리 차원의 이웃관계를 형성해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는 ‘민단 혁신과 재일동포 통일운동의 접목점’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통일 대비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본 사회를 이끄는 각계 리더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북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토론에 나선 임삼호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과 김수길 동경본부 단장은 국적이 아닌 민족 동일성의 관점에서 민단이 문화를 개방하는 한편, 지방참정권 실현, 복수국적의 가능성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월 20일 도쿄 한국중앙회관에서는 재일동포재단 주최로 민단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 한민족 정체성 육성한 2016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3개국 97명 참가, 공공외교 · 모국기여 방안 모색

세계 각국에서 전문직으로 진출한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에 모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키운 '2016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파주, 광주, 전주 등지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한인의 밭, 세상을 밝혀라'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23개국 97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가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경제 발전상을 살펴봤다.

17일 서울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모국의 평화통일과 새로운 동북아 시대'란 주제의 리더십 강연을 통해 한국과 거주국의 우호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한 한인차세대의 역할과 리더십 배양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검사, 의사, 디자이너, 정보통신 개발자 등으로 각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2~3세로, 방한 기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키워 거주국과 고국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18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돕는 '토크콘서트'와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등을 주제로 재외동포 시각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한 포럼을 진행했다.

19일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주 비무장지대(DMZ) 등을 견학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가자들을 만난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성공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컸다"면서 "정부

는 전세계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격려했다.

20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고려인 공동체인 고려인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등 봉사 활동을 펼쳤고, 21일 전주를 방문해 전통 혼례 등을 체험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철기 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 주류 사회로 진출해 전문직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면서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이들이 모국과 유대를 강화해 각국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하며 발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1998년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차세대 동포들이 참가했다.

## '글로벌 한국홍보 대사'로 임명

대회 참가자들은 18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글로벌 재외동포 한국홍보 대사'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거주국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박기태 반크 단장의 특강을 듣고, 김보경 반크 연구원에게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박물관, 웹사이트 등에 한국 역사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의 교과서, 언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2. 참가자들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삼도동의 새날학교를 찾아 다문화 청소년을 응원하는 벽화를 그렸다.
3. 전주시 전통문화관에서 참가자들은 재외동포(신랑)와 모국(신부)으로 역할을 나눠서 전통혼례를 체험했다.
4. 10월 17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23개국 97명의 차세대 동포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의 태극문양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해·독도 오류를 발견해 제보했고, 김안드레이 세르게이 러시아 EPAM시스템즈사 엔지니어는 러시아의 과학 사이트에서 ‘일본해’ 표기 오류를 찾았다. 박호선(여) 더다우케미컬사 컨설턴트는 브라질의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있다”는 오류를 발견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조차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록스’로 표기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며 “돌아가면 오늘 반크가 가르쳐 준 매뉴얼대로 오류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거주국에서 반크와 재외동포재단이 제시한 ‘오류 시정’과 ‘한국홍보 활동’ 등 공공외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크와 재외동포재단은 임무를 완수한 참가자들에게 심사를 거쳐 ‘글로벌 재외동포 한국홍보 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 다문화 응원 벽화·전통혼례 체험

참가자들은 20일 다문화 학교인 광주광역시 삼도동의 새날학교를 찾아 다문화 청소년을 응원하는 벽화를 그렸다.

이날 행사는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화가 준 진 엔젤하스 등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완성됐다.

21일에는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이번 대회로 재외동포 차세대들과 대한민국이 부부처럼 견고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기념해 참가자들이 신부와 신랑, 하객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전통혼례 형식의 폐회식을 진행했다.

신랑 ‘재외동포’의 역할에는 미국에서 온 최상현 씨가, 신부 ‘모국’의 역할에는 호주에서 온 남궁윤씨가 맡아 약 40분의 전통혼례를 직접 경험했고, 폐회식에 참가한 모든 차세대 리더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

론 등에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박 단장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차세대 리더들의 위대한 열정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여러분은 공공외교가 중요한 상황에서 외국의 정부와 현지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참가자들은 거주국의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 조사한 한국 관련 오류를 발표하고 현지에서 펼친 시정 노력 등을 놓고 토론했다.

박권영 미국 델타전략그룹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의

# 민주평통 통일대화... “모든 길 열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 맞이할 것”



1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탈북현상과 관련,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



2

- 1.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 민주평통 2016년 2차 정책건의 보고서



3

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군의 날 기념사의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자문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이라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 되면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

한편 민주평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

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된다.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9월 말 청와대와 통일부, 국회 등에 전달됐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제재 효과를 평가·점검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니터링 외에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써,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10월 11~14일 서울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제3차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를 열었다.

### “새마을운동지수 개발해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한편 박 대통령은 10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6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에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한 국가가 2013년 13개 국가를 시작으로 52개 국가에 이르렀다"며 "올해까지 26개국에 396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각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지수를 개발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새마을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회에는 48개국에서 7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창**

- 3.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 4.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하고 있다.
- 5.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막식에서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다.



4



5

# 이민 50주년 맞은 남태평양 피지 한인사회 한인 진출 기반 원양어업 퇴조 속 홈스테이 · 관광업 부각



**전** 세계 한인의 숫자는 720여만 명이고 이들이 사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한다. 재외동포 거주국 가운데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대규모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인 숫자가 수십 명의 초미니 규모인 국가도 있다.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의 한인사회도 숫자로 보면 1천1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지 한인사회가 갖는 상징성은 적지 않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남태평양의 섬, 피지 한인사회는 지구촌에서 한인 동포가 뿌리내리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피지 한인사회에 있어 뜻깊은 해이다. 이주 5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1966년 한국수산개발 소속 남해호 선단이 선박 수리차 피지에 기항하게 된 것이 이곳 이민사의 시작이었다.

남해호의 기항을 계기로 다른 회사 어선들도 피지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원양어선단이 피지와 사모아에 거점을 두고 어업활동을 전개했다. 1972년 피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조가 이뤄졌

고 1980년 한국대사관이 설치됐다. 원양어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커지면서 1992년 한인회가 출범, 오영준(61) 현 회장까지 17대에 이르고 있다.

피지 한인사회가 성장한 기반은 참치잡이 원양어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원양어업이 퇴조하면서 한인사회도 큰 변환점을 맞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금 참치가 많이 잡힐 때인데도 어황이 극히 부진하다고 한다. 바닷물 온도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예전에는 참치와 함께 주낙에 걸려 올라오는 상어가 큰 부수입이었는데 상어 지느러미 거래가 금지되면서 부수입이 없어진 것도 참치잡이 선단의 선장에게는 큰 타격이 됐다. 15년 전에는 동원산업, 사조 등 대기업의 대기업 어선이 50척, 30척에 달했다. 4~5년 전만 해도 한인 선장이 100여 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인 선장은 고기잡이 노하우가 있어 대만 등 외국 어선에서 일했으나 우리 선장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중국인 선장으로 속

속 대체되면서 한국인 선장은 자취를 감출 판이다.

원양어업 퇴조로 피지 한인사회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원양어업 대신 관광과 홈스테이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공항이 있는 난디에는 450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관광업에 종사한다. 영국 통치령이었던 피지는 영어권인 데다 학비도 싸서 어학연수 대상지로 꼽힌다. 수도 수바에는 한국에서 어학 연수는 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가 한인사회의 신종 사업으로 부상했다.

기독교가 주 종교인 피지에는 한인교회가 네곳이고 우리 선교사도 50여 명에 이른다. 아프리카, 남미를 휩쓰는 '중국인 러시'는 남태평양 도서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피지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만1천여 명으로 한국인의 10배에 달한다. 중국인이 몰려들면서 1~2년 사이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

중국 정부는 피지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도로, 교량 공사를 도맡다시피 할 정도이다. 중국인이 밀려오는 반면 먼저 터 잡았던 일본인들은 거의 빠져나가고 있다. 피지 원주민들의 중국인 평가는 아직까지는 더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인은 깨끗하고 근면하고 잘사는 나라 국민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상시 될 정도라고 한다.

수바 한글학교는 23년 전 개교했고 유치부, 중·고등부, 외국인반으로 나뉘 토요일에 교사 12명이 8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현지 태권도 사범인 라상현(44) 씨가 한글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시·공의 장벽을 없애버렸다.

지구촌 모든 곳의 한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국의 정보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피지에서서도 1년에 2달러만 내고 특정 앱에 가입하면 한국의 뉴스와 연속극 등을 불과 2시간 후에 받아볼 수 있다.

피지 한인회는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한인회관을 갖는 목표를 갖고 있다. 9월 10일 수바의 남태평양대학에서는 피지 한인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 5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려 K팝 공연, 노래자랑, 태권도 시범 등 흥겨운 축제마당이 펼쳐졌다. 오영준 한인회장은 이번 축제 수익금에서 1만 피지달러(약 600만 원)를 조성한 뒤 정부 지원을 얻어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90만의 피지는 경상북도 크기의 소국이지만 남태평양 14개 도서국을 잇는 교통의 허브이자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관광 교육의 중심지로 맹주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 피지는 거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개발 잠재력이 막대한 나라다. 망간 단괴, 망간각 등 대량의 해저 광물이 매장돼 있다. 피지는 또한 세계 제일의 수산자원 보고이다.

한인회 오 회장은 “피지 한인사회의 특징은 어쨌든 수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이라며 “수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인회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원은 제3국 인력으로 대체되더라도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인의 맥이 이어져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수산 분야로 눈을 돌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산업 전문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종합대학 등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큰 아쉬움을 표시했다. 피지 한인들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수바에는 참치 조업 중 숨진 선원들이 잠들어있는 선원 묘역이 있다. 이들은 고되고 위험한 여건 속에서 참치를 잡아 번 돈을 고국에 송금해 경제성장에 한 몫을 담당했다. 이주 50주년을 맞은 피지 한인사회는 원양어업 전진기지 명성을 되찾겠다는 꿈을 잃지 않은 채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창**



4



5



6

- 1. 9월 10일 피지의 남태평양대학에서 열린 이민 50주년 기념행사.
- 2. 피지 수도 수바에 있는 원양어선 선원 묘지.
- 3. 관광객을 맞이하는 피지 마나 섬의 원주민들
- 4. 피지 한글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는 라상현 태권도 사범과 한글학교 교사인 부인 이희경 씨
- 5~6. 피지 원주민 아이들과 어른
- 7. 우리 원양어선이 잡은 참치를 피지 현지 근로자들이 냉동 처리하고 있다.



7

모국 청년 100명 채용 호주 '초밥왕' 신이정 씨

## 25개 체인점 직영... 고급화·현지화로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

시드니에 본사를 둔 호주 최대 초밥 체인으로 동포 신이정(55) 회장이 운영하는 '스시베이'는 호주 전역에 25개의 직영점을 운영한다. 2004년에 1호점을 낸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신 회장은 9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공 비결을 “고급화와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 개발, 그리고 직원을 섬기는 경영”이라고 세 가지를 손꼽았다.

그는 첫 점포를 전국 체인망에 가진 대형 쇼핑몰에 냈다. 이 초밥집이 명성을 얻자 쇼핑몰 측은 다른 곳에도 입점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쇼핑·놀이·식사 등이 한 번에 해결되는 쇼핑몰에 고객이 몰리는 것에 주목했다. 밥 위에 날 생선살을 얹는 초밥보다는 다양한 소스를 뿌려 먹는 롤 초밥을 좋아하는 현지 입맛에 집중한 것도 주요했다. 현지화를 중시해 중동계나 중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점포를 낼 때는 음식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초밥을 선보였다. 체인점 중에 가장 잘나가는 매장의 경우 연 매출이 40억 원에 이를 정도다.

1989년 호주로 유학 가서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을 만난 그는 부부 공동으로 매장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초밥집 인테리어를 몇 군데 해주다가 나중에 한곳을 인수해 장사에 뛰어든 것이 스시베이의 시작이었다.

스시베이 성공에 힘입어 고급 레스토랑, 중저가 와인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식당 등도 차렸다. 부동산 투자, 건설업, 인쇄소, 양식업으로 사업범위도 확대했고 2011년부터는 한인 언론사 '한호일보'도 발행하고 있다. 그룹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기준 7천만 호주달러(약 606억 원)에 이른다.

스시베이에 100명의 한국 청년을 인턴과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로 고용한 신 회장은 선발 기준에 대해 “채용해서 가르치면 되므로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한국 청년을 고용하는 한인 기업주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인재는 협동심·책임감이 높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보장하면 영주권 취득이 제일 쉬운데, 스시베이는 지금까지 인턴과 워홀러 출신을 정식으로 고용해 100여 명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도 했다. 그는 한국 청년을 뽑으면



“어떤 사회나 기업도 100% 완벽하지 않으며 장단점이 있다.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성취감도 더 생기고 실력을 쌓는 첩경이라고 조언한다”고 소개했다.

신 회장은 3년 전부터 자비로 한국군 장병을 초청해 체험연수를 시켜준다. 매년 1군단 소속 부대 조리병 20명과 하사관 부부 10쌍을 1주일씩 초청하고 있다. 현지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는 호주한인공익재단도 후원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미디어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세계한상대회 리딩CEO로 발탁된 그는 “크게 성공한 한상도 많아서 사양하려고 했는데 대회에 참가해 차세대에 경험을 전해주는 게 역할이란 말에 수락했다”며 “대부분의 한상은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를 일궈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도전정신”이라고 조언했다.



필리핀 '망고장학회' 윤상식 이사장

## 5년간 한국 내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 83명에게 장학금 지급

윤상식(59) 필리핀 '망고장학회' 이사장은 "필리핀에 사는 한인 은 현지 사회와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다. 한인이 현지인에게 살해되거나 빈번하게 공격을 받는 최근의 상황이 그런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회의 참석차 방한한 윤 이사장은 10월 12일 "필리핀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필리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간 필리핀에서 살아온 그의 이런 생각을 실천한 것이 망고장학회의 설립이다.

그는 2012년 대한체육회 필리핀지회 회원들과 함께 '달콤한 미래를 꿈꾸리'는 의미에서 망고장학회를 만들었다. 해마다 고국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데, 맹목적으로 참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했고, 한국 내 필리핀 이주여성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 강릉, 아산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 83명에게 총 4천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내년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98회 대회 때는 장학생 10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전국체전을 여는 지자체에 4개월 전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는다. 10월 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필리핀 출신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참가했다. 윤 이사장은 대한체육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 12~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했으며 필리핀 한인사회의 '만형'으로 통한다.



입양아 출신 **진호 베르돈스코트**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

## “어려운 이혼을 온라인으로... 기술로 사법 접근성 해결”

서울에서 태어나 1세에 네덜란드에 입양된 진호 베르돈스코트(Jin Ho Verdonshot · 39)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이 10월 18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참석차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사법 서비스 개발과 연구에 매진한 끝에 분쟁 해결 온라인 플랫폼 '레크트바이저(Rechtwijzer)'를 개발한 그는 "레크트바이저를 이용하면 손쉬운 작동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세계 최초로 이혼, 건물임대차 같은 관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우선 이혼을 원하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대방과 연결하면 이혼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가정법원에 관련 내용이 송부되고 이혼이 성사된다. 그는 "한 건의 이혼을 해결하는데 1천 유로(약 123만

원) 미만이 들고, 약 3개월이 걸린다"며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을 장점으로 꼽았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를 통해 현재까지 1천200명이 이혼했고, 3천 명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은 10점 만점 중 7.5점이란 제법 높은 점수를 매겼다. 간편해진 절차 때문에 이혼율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소통 기회 덕분에 결국 이혼을 취소한 커플도 있었다"면서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른 이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화 기회를 주고, 어렵기만 했던 사법 서비스를 쉽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창**



## 이스탄불 한국협회, 15년째 현지 심장환자들에 '온정'

“제2의 고향인 터키에 봉사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만나니 잔칫날이 따로 없네요”. 10월 1일 이스탄불의 미마르시난에 술대학에서 이스탄불한국협회가 주최한 ‘사랑의 바자’에 교민과 터키인 8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바자에서 판매한 의류, 신발, 완구, 생활용품, 식품 등은 교민과 한인 기업의 기부로 마련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행사는 한인교회 주도로 시작됐으나 해를 거듭하며 터키 한인 사회 ‘만남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터키 거주 14년째인 30대 직장인 신소혜 씨는 “사랑의 바자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한인들이 모여 한국 음식도 나누고 안부도 묻는 행사”라면서 “터키 한인사회 행사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10월 1일 이스탄불 미마르시난에술대학에서 열린 제15회 터키 한인 사랑의 바자회에서 터키인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바자를 찾은 현지인들은 물건보다는 한국 음식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시리아 출신으로 이스탄불에 사는 세라즈 알파타(36)씨와 체코인 여자 친구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맛본 후 “이 볶음면 요리가 맛있다”며 잡채 한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 사랑의 바자 수익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터키심장재단과 시리아 난민 돕기에 전달된다. 주최 측 이스탄불 한국협회의 이석주 목사(이스탄불한인교회)는 “터키는 한국 전쟁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라며 “사랑의 바자회는 터키에 생명을 빛진 한인 공동체가

이 나라에 조그만 기여를 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케난 귀벤 터키심장재단 부이사장은 “한인 공동체의 기부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터키 심장환자 치료에 쓰인다”면서 “한인사회의 꾸준한 후원이 한국과 터키의 오랜 인연을 더 굳건히 할 뿐 아니라 터키인의 심장질환 인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 한인 청년,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미국에서 명문대를 거치며 물리학을 연구 중인 20대 한인 청년이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해 시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코넬대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 후 과정(포스트닥터)을 밟고 있는 이민용(28) 박사는 자신이 제1 저자로 쓴 '그래핀(Graphene) 구조에 있어서의 초전도 현상' 논문이 사이언스 최신호(9월 30일 자)에 실렸다고 10월 4일 밝혔다. 이 박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10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올해 5월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현재 코넬대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박사는 워싱턴 토머스제퍼슨과학고에 다니던 당시 2005, 2006년 2년 연속으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10대 시절부터 물리학 연구에서 두각을 보였다.

이 박사는 사이언스에 게재된 이번 논문에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 초전도 현상 등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과정을



미국 코넬대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 후 과정(포스트닥터)을 밟고 있는 이민용 박사. 그가 제1 저자로 쓴 '그래핀 구조에 있어서의 초전도 현상' 논문이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뤄진 얇은 판 모양의 소재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보다도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등 전기적인 특성이 뛰어나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박사는 “앞으로도 그래핀의 초전도 현상, 자기장을 이용해 전기적 성질을 제어하는 현상 등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심화하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결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녀와 소통법 찾기 나선 아르헨티나 한인들... “공감이 중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아르헨티나(지역담당관 김란)는 지난 9월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김윤신미술관에서 차세대 교육을 위한 세미나 ‘엄마,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를 개최했다. 아르헨티나 명문 디텔라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조교수로 재직 중인 변얼 씨가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뇌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면서 뇌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녀도 각각 다른 만큼 자녀를 교육하는 데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씨는 디텔라 대학에서 경제경영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디텔라 대학에서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분자생물학 코코랩 컨설턴트에서 컨설턴트로도 재직하고 있다.

KOWIN은 2010년부터 차세대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미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아르헨티나가 9월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한 차세대 교육을 위한 세미나에서 아르헨티나 디텔라 대학 변얼 조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를 개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사회 각계에서 성공한 이들을 강사로 초청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들려주며 현지사회에서 한인 2세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길을 제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세미나의 방향을 바꿨다.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는 바른 이민사회에서 소홀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기별로 1회 개최되는 세미나는 현지 교민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동전문가 겸 심리치료사 아스트릿 브루넨그라베

르 씨가 어떻게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한계를 지정해야 할지를 강연했다. 7월에는 아동 심리전문가 마리아 세실리아 마리노가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감성 코칭’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 재미동포 안미영 씨, 미 대통령 최고 봉사상 수상

재미동포 안미영(64) 씨가 미국 대통령 봉사상 가운데 최고상인 ‘평생업적상’ (President’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안 씨는 10월 13일 워싱턴D.C 연방 상원에서 상장과 대통령 축하 서한 그리고 배지를 받았다고 한미동맹협의회(총재 임청근)와 주한미군 재향군인회(회장 루이스 데카취)가 19일 전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미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그를 지난 7월 수상자로 연방 상원에 추천했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년간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한 결과여서 보람을 느낀다”며 “평생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힘닿을 때까지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출신인



미국 대통령 봉사상 가운데 최고상인 ‘평생업적상’을 받은 재미동포 안미영 씨. 그녀는 10월 13일 미 상원에서 상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서한, 배지 등을 받았다.

그는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민했고, 1990년대 LA 웨리프국 민간위원회 디렉터를 맡아 국제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불법체류 한인들의 구명 활동과 함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4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수상 자격이 주어지는 이 상은 연방 상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그는 2014년 한국 잠수함부대를 후원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워싱턴지회’를 창립했다. 미 해군 잠수함 연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맥아더 장군 기념관에 감사 석판을

설치하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홍보 다짐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폐회식이 10월 6일 오후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려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0월 4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에서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국 테크노파크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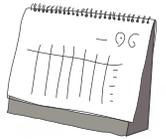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10월 4~6일 열린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전 세계 홍보 다짐과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다.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0개 도시에서 8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행사 기간 '수출 상담회', '중소기업과 수출친구 맺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해외 홍보 의지를 확인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원도에서 참가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사인 다림앤바이오의 김기섭 대표는 "전시를 위해 가져온 제품이 동남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동포기업인들이 제품 설명서 작성, 가격 산정,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조언을 해 준 덕분에 해외진출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반겼다. 여러 중소기업과 수출친구를 맺은 일본의 장영식 에이산 그룹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은 선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현지화가 부족하다"며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월드옥타는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올림픽조직위는 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월드옥타는 글로벌 네

트워크를 활용해 거주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월드옥타는 이번 대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줄이는 대신 비즈니스 품목별 상품 정보와 노하우를 교환하는 13개 통상위원회 미팅을 확대하는 등 비즈니스 교류에 치중했다. 폐막식에서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대회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통한 고국 경제 활성화,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글로벌 네트워킹, 차세대 육성 등에 집중했다"며 "특히 회원들은 거주국으로 돌아가면 평창동계올림픽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친정이 잘 살아야 어깨를 펴고 살듯이 동포기업인도 모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소기업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품질이 좋지만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 노하우를 가진 노련한 동포기업인 간 '수출친구 맺기'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1년 창립한 월드옥타는 71개국 141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정회원과 1만 7천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둔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고국 상품의 수출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4월 세계대표자대회와 10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열어 모국 상품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월드옥타의 내년 세계대표자대회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



## 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 창립... 원장에 임채완 전남대 교수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한민족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공동체인 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이 10월 1일 창립됐다. 총회 참가자들은 임채완 세계디아스포라 학회 회장 겸 전남대 교수를 초대 원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를 이사장으로 각각 뽑았다. 임 원장과 이 대표, 조남철 전 방통대 총장, 조용제 전 월드컵대 상근부회장, 유혜량 사회복지법인 총현원 원장 등 5명이 이사로 등재됐다.



## 서울 종로서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사진전

일제 강점기에 강제 이주해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무국적자로 살았던 사할린 동포의 삶을 사진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이예식 사진기자 와 러시아·중국·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삶을 기록해온 김지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의 갤러리 '고도'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열었다. 30년간 동포들의 일상을 사진에 담은 이 기자의 작품 60여 점과 김 작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됐다.



## 여가부, 재일 한인여성 권익 향상 공로자에 표창

여성가족부는 재일한인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재일본 대한민국부인회(이하 부인회) 회원 10명에게 강은희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부인회는 재일한인여성의 연대 강화와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권익증진 운동, 차세대 민족의식 교육, 노인 복지사업 등을 활발히 벌여온 일본 내 대표 여성한인단체다. 1949년에 발족해 약 1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LA 한인 중소기업들 뭉쳤다... '미 서부 中企연합회' 발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과 한인 수입업체들이 주축이 된 '미국 서부 중소기업 연합회'가 로스앤젤레스(LA)에 발족한다. 최종락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장은 10월 18일 "한남체인과 김스전기, 팔레스부티 등 한인 수입업체와 미국에 진출한 수입업체 52개사가 참여하는 '미국 서부 중소기업 연합회'가 10월 28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주요 사업은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정보 제공, 한인 수입업체 방한 시 중소 제조업체 연결, 연 1회 컨벤션 개최, 전 세계 한인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통합 합의

전 세계에서 한글 매체를 발행하는 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와 재외동포언론인협회(재언협)는 10월 21일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동포언론인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 ▲재외동포 이익 대변 ▲재외동포청 설립과 복수국적 현안 해결 등 7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통합 로드맵을 작성하고 회의를 거쳐 각종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2017년 봄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카자흐 정부, 11만 고려인 위해 단군 기념주화 발행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지난달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형상화한 기념주화 10만 개를 제작했다. 10월 31일 현지 동포신문인 한인일보에 따르면 은으로 만든 주화에는 단군상과 환웅을 그리고 한글로 '단군전'이라고 새겼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카자흐·러시아·우크라이나 민족의 기념주화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에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을 위해 단군 기념주화를 만들었다.



# 싱가포르에 다양한 모습으로 한류 확산 “1박2일 방영된 곳 어떻게 찾아가죠?”

채혜미 |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 아트 저널리스트

싱가포르를 도심을 거닐다 보면 한류 스타의 얼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거나 백화점에서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흔히 듣게 된다. 한국식 빙수 카페 앞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로 늘어서 있다. 한국 TV 프로그램이 싱가포르 안방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문화는 싱가포르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1박 2일’에 방영된 곳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묻는 현지 젊은이, 한국요리 래스피를 알려 달라는 싱가포르의 주부, 한국 화장품 중에서 품질 좋은 메이커를 추천해 달라는 싱가포르 아가씨들을 이제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어 학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이 느껴진다. 지난 8월 26일 ‘아시아의 카네기홀’이라 불리는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대극장에서 울려 퍼진 테너 이재욱과 소프라노 한지혜의 주옥같은 아리아는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싱가포르의 유일한 오페라단인 ‘싱가포르 리릭 오페라단’의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에서 남녀 주인공을 모두 한국인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한국 오페라 가수들이 세계 정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9월 2일 ‘싱가포르 차이나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차이나즈 오케스트라 콘서트 홀’의 무대에서 열린 ‘코리아, 뉴 웨이브즈’ 공연은 한국민요, 국악과 K-pop뿐만 아니라 ‘경극 보컬’이 함께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로 현지인들의



8월 26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대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의 주인공 소프라노 한지혜, 테너 이재욱.

국악과 K-pop, ‘경극 보컬’이 함께 어우러진 ‘코리아, 뉴 웨이브즈’ 공연. 9월 2일 ‘싱가포르 차이나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차이나즈 오케스트라 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마음을 사로잡았다.

10월 2일 ‘라 메르 에 릴’(바다와 섬) 앙상블(최연우, 박준영, 김대준, 김정권, 김보혜, 이승희, 리사)이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리사이틀 스튜디오’에서 연주회를 했다. ‘독도사랑 축제’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독도와 동해’를 세

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지속하고 있는 ‘한류’는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예술, 역사, 가족관, 가치관, 풍습 등의 정신적인 부분은 물론 패션, 엔터테인먼트, 먹거리, 생활양식, 여행 등의 일상적인 삶을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는 “한국과 싱가포르 예술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클래식,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로 문화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

## 한인 2세 캐나다 검사 이진아 씨 “이민가정 출신 배경이 검사 생활에 도움… 열정적으로 살 것”

“형 사부 검사로서 음주 운전부터 가정 폭력, 성폭행, 살인까지 사회의 온갖 어두운 면을 접하며 살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가 한국계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인보다 민감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6년 차 검사인 이진아(31) 씨는 10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에는 내가 한인 2세라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오히려 얻은 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걸어온 길을 보면 재외 한인 2세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공적으로 주류 사회로 진출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캐나다 명문대 중 하나인 맥마스터대 생화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인 로스쿨로 다시 뛰어들어 2011년 검사실로 입성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한인 2세라는 배경은 ‘숙제’가 되기도 했고 ‘선물’이 되기도 했다.

이 씨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로, 이민 1세대인 조부모, 1.5세대인 부모와 함께 3대가 어울려 사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에서 컸다. 사춘기 시절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어렸을 때는 마음 한쪽에 답답함을 안고 살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마 정체성 혼란 때문이었나 봐요. 집안에서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지내다가 학교에 가면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맞춰야 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왕따가 될까 봐 걱정도



했죠. 그래서인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하고, 집에 오면 가족이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고민은 2003년 대학에 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상황과 부딪히게 되면서 성숙함을 배우게 됐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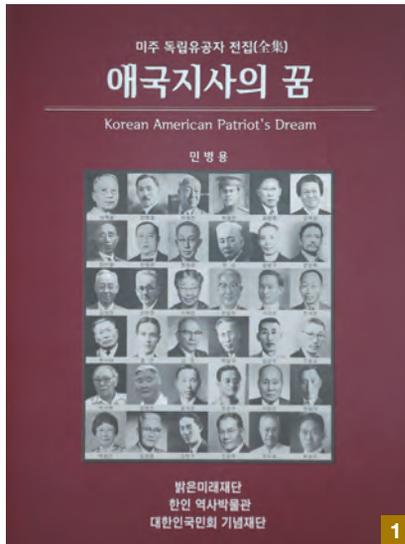
그가 학부에서는 생화학을 전공하며 의사가 되기를 꿈꾼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 이민 1세대는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맨손으로 가정을 지키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한인 어르신들은 무척 정이 많으세요. 과학을 공부하는 게 무척 재밌기도 했고, 아픈 어린이를 돕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생화학을 택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진로를 로스쿨로 바꿨다. “법을 공부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2009~2011년 토론토의 오스굿 홀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아동 성착취 반대 단체 ‘ECPAT’ 등에서 법률 인턴을 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아닌 검사를 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캐나다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한국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크라운 어토니’ (Crown Attorneys)라고 불리는데,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측 변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 피의자를 기소할지를 결정하는데,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하지만 피의자가 무고한 경우엔 결백을 입증하는 일도 중요해요. 진실을 찾는 직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씨는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해자, 피해자, 증인 등 여러 사람을 접해야 하는데, 검사로서 이민 가정 출신이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의 한인 노인 지원 시설인 ‘하리랑시니어센터’에서도 이사로 참여해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장**

# 미주 독립유공자 215명 전집 국내에도 선보여 이승만 · 안창호 등의 발자취 담은 ‘애국지사의 꿈’ 출판

이승만 · 안창호 · 서재필 · 장인환 · 전명운 등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215명의 발자취를 망라한 책이 국내에서도 선보였다. 미국 LA의 한인역사박물관(관장 민병용)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 밝은미래재단(이사장 홍명기)과 함께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애국지사의 꿈’을 지난 3월 미국에서 발간한 데 이어 국내 보급에 나섰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며, 밝은미래재단은 재미동포 기업가이자 미주도산 기념사업회 총회장인 홍명기 듀라코트 대표가 이끄는 재미한인 사회공헌 재단이다.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이 직접 집필한 이 책에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미주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 1945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미국 · 멕시코 · 쿠바의 독립유공자 전원의 행적이 담겨 있다. 215명 가운데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안창호 선생처럼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한 집안에서 6명이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강명화 가족과 같이 덜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도 있다. 다섯 아들과 함께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떠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강명화는 1905년 미국 본토로 이주해 대한민국 민회 북미지방 총회장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아들도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민 관장은 미주 이민자들이 극심한 인종차별과 혹독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수입의 10~20%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고, 이 돈이 이승만은 물론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에게까지 흘러갔다는 증언도 처음으로 소개했다. 초기 미주 한인 이민사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야기도 수록했으며 850장의 사진을 곁들였다.

민 관장은 9월 22일 “지나해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미주의 국권 회복운동을 널리 알리고 그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이

가려는 취지에서 책을 펴낼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이 책이 발간이 돼 더 많은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나오고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미주 독립운동을 소홀히 다뤄온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어려운 시절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자들의 모습을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고,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에 미주 독립유공자들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관장은 9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애국지사의 꿈’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 앨프 안 씨를 비롯해 미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향]**

1.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이 집필한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전집 ‘애국지사의 꿈’. 이 책에는 이승만 · 안창호 · 서재필 · 장인환 · 전명운 등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215명의 발자취를 담았다.
2.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이 9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전집 ‘애국지사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생각해 잠겨 있다.
3. 3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서 열린 ‘애국지사의 꿈’ 출판 기념회에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인 앨프 안(90)이 연설하고 있다.

# 바른 말 고운 말

**ㅣ 씨가 안 먹힌다** “아무리 좋은 핑계를 대고 이번 일에서 빠지려고 해도 소용없을걸. 그 친구한테는 전혀 씨가 안 먹히는 얘기일 테니까.” 흔히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씨가 안 먹힌다’ 또는 ‘씨도 먹히지 않는 얘기다’ 하고 핀잔하는 말을 합니다. ‘씨가 안 먹힌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요즘은 공장에서 옷감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공장이 없던 옛날에는 집에서 베를 가지고 옷감을 짜서 쓰곤 했습니다. 베를 씨줄과 날줄을 교차시켜서 짜는데, 세로 실을 ‘날’이라고 하고 가로 실을 ‘씨’라고 했습니다. 날실 사이를 씨실이 한 올 한 올 잘 먹혀야 옷감이 곱게 짜집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비가 올 때처럼 습기가 많을 때는 씨실과 날실 사이가 뻑뻑해져서 씨실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감을 짜기가 힘들어지죠. 바로 이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씨가 먹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ㅣ 겹잡다/겹잡다** “화약 폭발로 불길에 겹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는 앞으로 겹잡아 두 달은 걸릴 것입니다.” 두 개의 예문에서 ‘겹잡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첫 예문에서는 ‘거두어 바로 잡다’라는 뜻으로 ‘겹잡다’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겹으로 보고 대강 셈 쳐서 어림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겹잡다’입니다. 두 단어가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나:달’이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달’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 구슬이 ‘나:달’로 흩어졌다 란 문장에서 각각 ‘나:달’로 발음한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첫 예문에서는 곡식의 알을 가리키는 말로 ‘날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날알’로 쓰는데 여기서 ‘날’은 셀 수 있게 된 물건의 하나하나를 뜻하는 명사로 그 뒤에 다양한 낱말과 결합해서 ‘날개, 날권’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오른쪽 방향 열쇠**

1. 스므 번까지 질문하면서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놀이
3.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며 지각이 흔들리는 일
5. 잘 때 몸을 던기 위해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 솜을 넣기도 한다
7.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9.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을 모두 이르는 말
10. 밀가루 등을 반죽해 소를 넣어 빚은 음식. 삶거나 찌거나 기름에 튀겨 만드는데, 떡국에 넣기도 하

- 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12.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게 되는 점
13. 바람이나 경축, 환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14.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충분히 붓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걸쭉한 음식. 흔히 환자나 어린아이들이 먹는다
15. 방에 두고 소변을 보는 그릇. 낫쇠나 양은, 사기 등으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17.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19. 물에 삶거나 물에 관련된 새를 모두 일컫는 말
20. 조선 시대의 판소리에 소설,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22. 김치를 담글 때 쓰는 채소
24. 모깃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25.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

9. 기차, 버스, 전차 등을 운행하는 일정한 구간의 맨 끝이 되는 지점
11. 우리나라 동북부를 흐르는 강. 백두산에서 시작해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12.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
15.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또는 그런 시설을 한 곳
16.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18. 술과 함께 대표적인 기호품의 하나로 불을 붙여 피우면 연기가 난다
19. 물의 힘으로 공기를 오르내리게 해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 식량이 궁핍한 봄철의 때
21. 전등에 켜진 불
23. 추운 정도, 더위의 반대말

**▶ 아래쪽 방향 열쇠**

1. 간첩
2. 담이나 울타리 또는 대문의 밑에 개가 드나들도록 터놓은 작은 구멍
3. 비 온 뒤에 땅바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벌레. 길이가 길고 몸은 가늘고 붉은 색을 띤다
4.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6. 마음에 차지 않아 만족하지 못함
8. 결혼하기를 청함

**▶ 10월호 정답**

오	선	지		만		물	지	계
미				용	상			
자	화	자	찬		아	진	인	수
	랑		모	옥			당	
면	도	기		실		물	수	건
세			고		저			달
			창	문	촉	대		
원				관	측	서		녹
망	루			간		소	방	차

# 조선 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별미... 임진강 참게 참게 맛 으뜸은 계장...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밥 도둑



1



2

**남**북한을 흘러 서해로 통하는 임진강 주변은 사시사철 맛 좋은 별미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봄에는 황복, 가을에는 참게'라는 말이 있듯이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진미로 알려진 황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다.

참게를 말할 때 '가을바람이 참게를 살 찌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맘때 참게의 속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제일 좋다. 참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한 뒤 민물 상류로 이동해 겨울에 필요한 영양분을 몸속에 가득 채우고 가을에 다시 바다 쪽으로 내려간다. 짝짓기를 향한 본능이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9~1월에 주로 통발로 참게를 잡는다.

게딱지의 크기는 보통 10cm 내외이고, 암놈보다 수놈이 조금 크다. 강에 처진 통발이나 낚시줄에 희생되지 않고 바다로 내려간 참게들은 이듬해에 알을 낳는다. 연어와는 정반대 인생행로다. 참게는 물고기 등이 죽어 가라앉으면 말끔하게 처

리해주는 최고의 청소부로도 알려졌다. 요즘 임진강 참게 철이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노란 장이 가득한 놈들이 한창 잡히고 있고, 임진강변에 위치한 맛집은 '가을철 최고의 밥 도둑'으로 불리는 참게를 맛보려는 식도락가들로 붐비고 있다.



3

1~3. 임진강 주변은 사시사철 맛 좋은 별미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봄에는 참복, 가을에는 참게'라는 말이 있듯이 참게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진미로 알려진 황복과 함께 임진강의 별미다. 참게 음식점은 민통선을 앞에 둔 임진강변에 많이 몰려 있다.



4



5

4. 임진강 참계탕은 조선 시대 궁궐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소하고 담백하다. 대게나 꽃게 보다 먹을 것은 적지만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노란 장과 속살을 발라먹는 맛이 일품이다.
5. 참계탕은 게 특유의 비린 맛이 없으며 구수하고 매콤하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쫄깃쫄깃한 수제비의 맛도 일품이다. 참계에 메기와 민물새우를 넣어 진하게 끓여 내는 참계매운탕도 색다른 별미다.

참게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 있어 발육기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건강식으로 그만이다. 또 간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키토산과 필수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참게는 참계탕, 참계장, 참계매운탕 등 요리 방법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참게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계장이 으뜸이다.

참게는 대게나 꽃게와 달리 크기도 작고 맛도 고소한데, 따끈한 흰 쌀밥에 잘 익은 참계장 속살을 뜯어 살짝 얹은 뒤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으로 퍼진다. '참게 한 마리면 밥 한 그릇 비운다'는 말이 있듯이 참게 딱지에 밥을 비벼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미파람에 게 눈 감추듯' 다 비울 수 있다. 참계장의 별미는 아이 손바닥만 한 껍데기에 붙어 있는 노란 장이다. 그 맛이 고소하기 이를 데 없다. 밥 한 공기 또 추가해 게 껍데기에 바짝 붙은 장을 수저로 박박 긁어먹게 된다.

고추장과 미나리를 넣고 끓인 참계탕도 군침이 절로 돈다. 시원한 국물은 기본이고, 게 특유의 비린 맛이 없으며 구수하고 매콤하다. 속이 딱 들어찬 참게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쫄깃쫄깃한 수제비의 맛도 일품이다.

참계에 메기와 민물새우를 넣어 진하게 끓여 내는 참계매운탕도 색다른 별미다. 국물 맛이 구수하면서도 칼칼할 뿐 아니라 참게의 풍미가 가득 밴 부드러운 우거지의 맛도 어지간하다. 계장과 달리 참계탕과 참계매운탕은 가을에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급랭시킨 게는 아무래도 고소함과 독특한 향이 덜하다.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 참게 맛을 볼만한 집이 여럿 있다. 대부분 계장 한 마리와 함께 나오는 백반 정식(1인분)이 1만2천~1만5천원, 참게 두 마리를 넣어주는 참계탕이 1만8천~2만 원 선이다. **장**

Tip

▶ 반구정(伴鷗亭)



반구정은 조선 세종 때 황희(黃喜 · 1363~1452)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갈매기를 벗 삼아 여생을 보낸 곳이다. 반구정 옆에는 황희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영당이 있다. 반구정은 황희가 죽은 후 조상을 추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이 유적으로 보호하여 오다가 한 국전쟁 때 모두 불타 버렸다. 그 뒤 이 근처의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복구해 오다가 1967년 크게 고쳐 지었다. 건물 규모는 앞면 2칸·옆면 2칸이며, 기둥 윗부분과 옆면 등에 꽃무늬 장식을 돌려 붙였다. 문산의 임진강변에 자리하여 앞에는 널찍한 모래톱이 있다. 맑은 날 정자에 오르면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 파주 여행 정보



- 임진강을 따라가는 1박 2일 드라이브 코스  
 감악산 계곡 → 화석정 → 반구정 → 임진각관광광지(제3 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등 연계관광) → 자유로 → 오두산 통일전망대 → 유비파크

- 관광 안내  
 임진각 관광안내소 (031-953-4744)  
 제3 땅굴 관광안내소 (031-940-8526)
- 대중교통  
 좌석버스 (서울-파주,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200번, 2200번)  
 기차 (서울역에서 문산역까지 경의선, 1시간 소요)

- 식당 정보  
 원조두지리매운탕 1호점 (031-959-5377)  
 원조두지리매운탕 본점 (031-959-4508)

#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

알쏭달쏭 답답한 민원을 코리안넷 재외동포신문고에 푹푹! 노크하세요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신청 분야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 업무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절차

1. 코리안넷 회원가입 /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서에 민원인 정보 입력
3. 하단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 작성
4.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 첨부 찾아보기에서 파일 Upload
5. 제출
6. 민원신청 완료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ICT 분야 우수인재 국내유치 프로그램

#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당신,  
ICT강국 대한민국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을 통해  
당신의 꿈을 펼쳐보십시오.  
대한민국 ICT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 지원대상 : 재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원)
- 지원분야 : 정보통신(ICT)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원내용 : 인건비, 체재비 등

●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http://www.iitp.kr)) /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brain@iitp.kr](mailto:brain@iitp.kr))  
페이스북([www.facebook.com/iitp.brainscout](https://www.facebook.com/iitp.brainscou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